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자유 주제 10분 말하기’ 모둠학습 발표를 맡은 3모둠 발표자 ○○○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러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 우리 학교의 웹 페이지와 ◇◇고등학교의 웹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고 읽기 쉬우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였네요. 이처럼 웹 페이지를 잘 디자인하면 사용자가 콘텐츠에 흥미를 잃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페이지는 인터넷 상의 웹 문서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문서 속에는 글,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찾는 웹 페이지가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다양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 페이지를 즐겨 찾으면서 좋은 웹 페이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 좋은 웹 페이지 디자인이란 제작자의 표현 의도와 내용을 사용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화면에 효과적으로 구성해 놓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좋은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서체의 분류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서체는 크게 돋움체, 바탕체로 나뉩니다. 획의 굵기가 굵고 일정하며 굽은 곳이 거의 없는 돋움체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나 제목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바탕체는 상대적으로 획의 굵기가 가늘면서도 굽기가 일정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바탕체로 된 글을 읽을 때에는 사용자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적어 본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 시각적 리듬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적 리듬감이란 다양한 강조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가 눈에 잘 띄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제목은 본문 글자 크기의 1.8배~2.2배 정도 커야 하며 굵고 진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목은 제목을 읽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도 소제목을 그 자체로 강조하기 위해 굵기에 변화를 주거나, 본문 글자 크기의 1.2배~1.5배 크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세 가지 웹 페이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간이 좁게, 보통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보다 자간이 좁으면 더 쉽게 읽히고 시각적으로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자간이 넓으면 글자와 글자 간격이 넓어져 시원해 보입니다. 다만 자간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글을 읽을 때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②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담화 표지를 사용해 발표 내용에 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발표 도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2. 위 발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구사랑 바자회 개최
환경보호 이벤트가 함께 열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

②

지구사랑 바자회 개최
환경보호 이벤트가 함께 열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

③

지구사랑 바자회 개최
환경보호 이벤트가 함께 열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

④

지구사랑 바자회 개최
환경보호 이벤트가 함께 열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

⑤

지구사랑 바자회 개최
환경보호 이벤트가 함께 열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

3.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반영하여 발표자에게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웹 페이지에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웹 페이지에서 글자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웹 페이지를 잘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웹 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③ 웹 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서체는 무엇인가요?
- ④ 웹 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⑤ 웹 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 7] (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자원봉사자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등굣길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 대상 및 인원: 우리 학교 학생 10명
2.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 2020년 6월 ○일 ~ 2020년 6월 △일, 등교 시간, 교문 앞
3. 자원봉사 활동 내용
 - 1)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착용 홍보
 - 2) 학생 통학 차량 정차 위치 안내
4. 자원봉사 활동 지원서 제출: 2020년 6월 □일까지 학생회장에게 직접 제출
5. 기타 사항
 - 학생회 주관
 - 봉사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나)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과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캠페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의 초고를 살펴보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임원 1: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2: 저도 동의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활동 일시에 보면 등교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임원 3: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이고,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7시 30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공고문에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A]

임원 1: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하루 최대 1시간 인정된다는 내용도 기타 사항에 추가하는 게 좋겠네요.

학생회장: 네.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 항목에서 시간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에도 하루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소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으신가요?

임원 1: 등교 시간에 개방되는 정문과 후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공고문에도 두 군데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회장: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캠페인 활동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도 공고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3: 우리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 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B]

임원 1: 저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던 학생이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학교 [C] 지킴이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 횡단보도 보행과 관련하여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임원 3: 횡단보도의 신호를 준수할 것을 홍보하는 건 어떠세요?

학생회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횡단보도 신호 준수 홍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2: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학생회장: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의 기타 사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지원서는 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원 1: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 다문화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 담당 학생이 지원서를 분실하여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게 하면 지원 학생은 번거롭고 업무 담당 학생은 서류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회장의 이메일로만 지원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D]

임원 2: 지원서를 제출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지원서를 분실하더라도 다시 인쇄할 수 있어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E]

학생회장: 네. 공고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원 1: 지원서를 제출한 순차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임원 3: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에서 면접을 통해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원봉사자 선발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임원 2: 두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회장: 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거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후) 학생회에서 면접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회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고문을 수정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학생회 지도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나)에 나타난 학생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전 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⑤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5.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② [B]: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③ [C]: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D]: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제안의 장점을 언급하며 상대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집 대상 및 인원: 우리 학교 학생 10명
2.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
 - 1) 날짜: 2020년 6월 ○일 ~ 2020년 6월 △일
 - 2) 시간: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 3) 장소: 우리 학교 정문과 후문㉡
3. 자원봉사 활동 내용
 - 1)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착용 홍보
 - 2) 횡단보도 신호 준수 홍보㉢
 - 3) 학생 통학 차량 정차 위치 안내
4. 자원봉사 활동 지원서 제출: 2020년 6월 □일까지 학생회장 이메일(◇◇◇◇@◇◇◇◇.com)로 제출
5. 기타 사항
 - 학생회 주관
 - 봉사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 하루 최대 1시간 인정
 -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학생회장에게 직접 수령㉣
 - 자원봉사자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생회에서 면접으로 선발㉤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회의 후 선생님과 학생회장이 나누는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캠페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추가하면 좋겠어.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안전 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피켓 문구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기억에도 잘 남을 것 같아.

학생회장: ㉠은/는 어떨까요?

- ① 덩빙덩빙 무단횡단 성큼성큼 병원신세
- ② 자전거 안전모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 ③ 도란도란 알콩달콩 폭력 없는 행복 학교
- ④ 안전한 등갯길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생활
- ⑤ 교통신호, 지키면 안전해요 어기면 위험해요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학생들
- 목적: 다운 패딩의 소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패딩을 구입할 때 윤리적인 선택을 하자고 주장함

(나) 학생의 초고

윤리적인 선택, 착한 패딩을 입자

- ㉠ 식생활 개선으로 생명 존중의 실천을 -

겨울철 패딩이나 코트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성 소재를 만들 때, ㉡ 상품의 질감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 채로 동물의 털을 뜯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운 패딩(down padding)*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거위의 수는 15~25마리라고 한다. 그 거위들이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5~15번 정도 털을 ㉢ 뜯긴다. 이러한 동물 착취는 오리, 양, 토끼에게도 일어난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제조 산업에 대한 반발로 패션계는 모피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비거니즘(veganism)*을 확장해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건 패션’이란 동물의 가죽, 털이 사용되지 않은 옷이나 가방, 패션 아이템들을 뜻한다. ㉣ 이 중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은 저렴한 가격, 손쉬운 관리 등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기존의 동물성 소재들을 합성 소재나 식물성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 아마도 다운 패딩을 사야 한다면 ‘RDS 마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이 마크는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거위 털을 생산하는 업체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운 패딩 제품의 업사이클링*을 택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한 벌의 옷을 다시 쓰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류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용당하는 동물들에게 선택의 기회란 없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착한 패딩을 구입하도록 하자.

- * 다운 패딩(down padding): 오리나 거위 털을 충전재로 사용한 방한복
- * 비거니즘(veganism):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을 거부하는 채식주의
- * RDS 마크: 윤리적 다운 제품 인증 마크
- * 업사이클링(up-cycling): '업그레이드+리사이클링'의 의미로, 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하는 일

8.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 문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 ㉠
- 설명이 필요한 주요 용어는 따로 뜻을 풀이할 것 ㉡
-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켜 글을 쓸 것
- 1. 다운 소재가 지닌 문제점
 - : 거위를 학대하는 깃털 채취 과정
 - :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 발생 ㉢
- 2. 문제 개선 방안
 - : 합성 소재로 대체하기 ㉣
 - : RDS 마크를 확인하기
 - : 업사이클링하기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나)의 ㉠~㉤을 고쳐 쓰기 한 이유와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제목이 본문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로 고친다.
- ②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을 '상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로 고친다.
- ③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을 '뜯는다'로 고친다.
- ④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을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⑤ 문맥상 문단을 접속하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을 '그래도'로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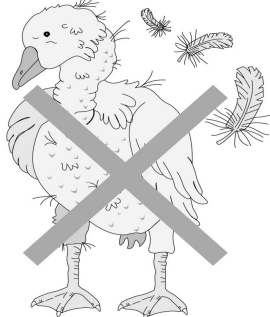

10. <보기>는 초고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다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신문 기사 제목

- 패딩 열풍, 진원지는 10대 중·고등학생들(○○일보)
- 열에 일곱은 롱패딩, 교복처럼 입고 등교해(△△일보)
- 다운 패딩의 진실, 오리의 눈물이 담겨 있기도(□□신문)

ㄴ-1. 깃털이 뽑힌 거위 ㄴ-2. 동물 보호 인증 기준


⇒


- 살아있는 조류의 깃털을 강제로 뽑지 않음
- 거위의 먹이, 건강, 위생 관리와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함

○ 다운 옷 한 벌 = 15~25마리의 거위

ㄷ. 합성 소재와 다운 소재의 대비

	합성 소재	다운 소재
세탁	○ 물세탁 후 소재의 물림 현상이 적음	○ 물세탁 시 물림 현상이 발생하여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함(세탁비 상승)
냄새	○ 없음	○ 눈, 비에 젖으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알레르기	○ 없음	○ 민감성 피부에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ㄹ. 인터뷰 자료

“다운 제품의 업사이클링은 헌 옷을 수거해 외피를 제거하고 거위, 오리 솜털을 꺼내 재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롱 패딩과 숏 패딩 500여 벌을 만들어 약 1만 마리의 희생을 막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요.”

- 다운 패딩 업사이클링 업체 대표 -

- ① ㄱ의 신문 기사를 활용해 서론에서 청소년이 즐겨 입는 패딩 소재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야겠어.
- ② 거위 학대의 실상을 본론의 첫 문단으로 사용하고 ㄴ-1과 같은 시각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시해야겠어.
- ③ ㄴ-2를 활용해 동물 보호 인증 마크와 그 기준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이를 획득한 의류를 구입하자고 권유해야겠어.
- ④ ㄷ의 정보를 활용해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의 단점을 소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겠어.
- ⑤ ㄹ의 경우를 들어 업사이클링 패딩의 구입이 거위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비 방안임을 제시해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뜻하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면 ‘미래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나 시간 부사를 통해 실현된다.

시제의 종류 문법 요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 -었었-, -더-	· 동사: -는-, -ㄴ- · 형용사: 없음	-겠-, -(으)리-
관형사형 어미	· 동사: -(으)ㄴ, -던 · 형용사: -던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으)리
시간 부사	어제, 옛날 등	오늘, 지금 등	내일, 곧 등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는 항상 특정한 시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았-/었-’은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 ㉠ 찬호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닮았다.
- ㉡ 네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은 ‘찬호와 아빠의 닮음’이라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의 ‘붙었다’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쓰였지만, 발화시에서 볼 때 ‘대학에 붙는 일’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사건이다.

11. 윗글을 읽고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잔다.
 ㉡ 영주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다.
 ㉢ 전국적으로 비가 곧 내리겠습니다.

- ①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② ㉠: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③ ㉡: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 시간 부사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12.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 ②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 ③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 ④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 ⑤ 어린 동생과 싸웠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

13.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형태소는 다음의 두 기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예 / 아니요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예 / 아니요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

다음은 아래 ‘예문’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위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 예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형태소 분석 결과:

형태소 구분 기준	경찰	이	도둑	을	잡-	-았-	-다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예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	아니요	예	아니요	㉢	아니요	아니요

㉠~㉢에 들어갈 대답을 모두 바르게 짝지어 볼까요?

- | | | | |
|---|-----|-----|-----|
| | ㉠ | ㉡ | ㉢ |
| ① | 예 | 예 | 예 |
| ② | 예 | 아니요 | 예 |
| ③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④ | 아니요 | 예 | 예 |
| ⑤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14.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할 때, ㉠과 ㉡의 사례가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ㄴ(ㄴ, ㄹ, ㄷ,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뺨] 술잔[술쩐] 옆집[엩집]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ㄷ,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앓다[안따] 닭고[닭:꼬] (㉡)

- | | |
|------------|----------|
| ㉠ | ㉡ |
| ① 웃고름[웃꼬름] | 젊고[젊:꼬] |
| ② 문고리[문꼬리] | 감고[감:꼬] |
| ③ 갈등[갈똥] | 앓다[안따] |
| ④ 덮개[덥개] | 언짱개[언짱개] |
| ⑤ 술잔[술쩐] | 더듬지[더듬찌] |

15.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다음 담화 상황에 등장하는 ㉠, ㉡이 달라질 때, 언어 예절에 적합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 보자.

[담화 상황]
(내가 철수에게)
“어제 ㉠ **영희**가 ㉡ **경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어.”
※ 말하는 사람인 ‘나’와 철수, 영희, 경희는 서로 대등한 관계임.

- ①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조사 ‘가’를 ‘께서’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②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조사 ‘에게’를 ‘께’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주는’을 ‘주시는’으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④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보았어’를 ‘보셨어’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⑤ ㉡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보았어’를 ‘보았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 줄 수 없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의 측정에 성공했다.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 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질의 기본 단위원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 이 원자핵에 들어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다.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고,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이다.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 한다. 예를 들면 탄소의 경우, ‘탄소-12’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탄소-14’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이다.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붕괴라 한다.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한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14’가 된다.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 일컫는다.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는 모원소이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14’는 자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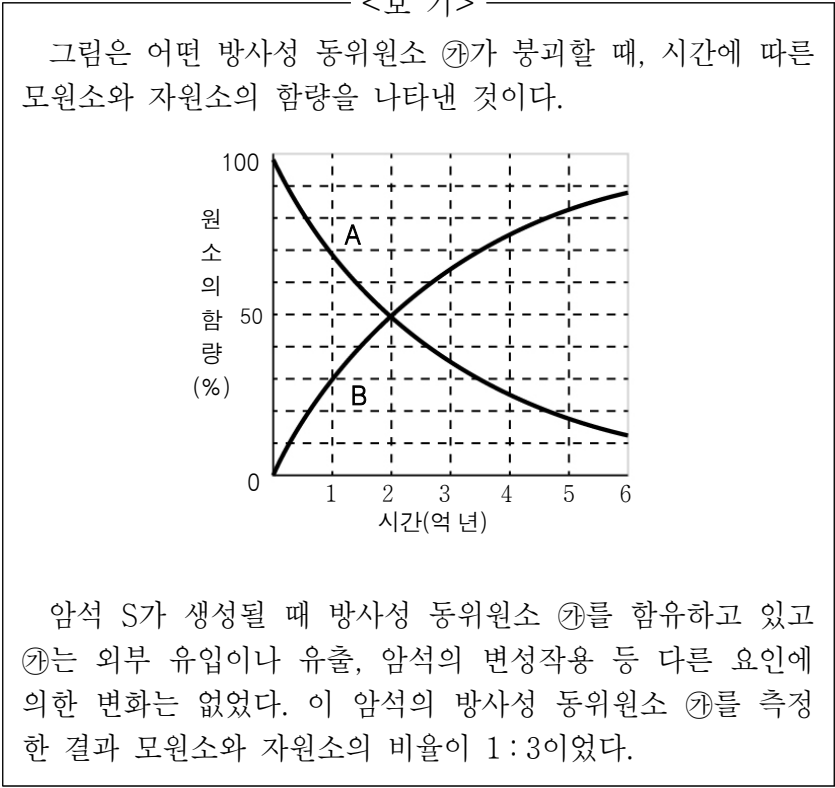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한다.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의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의 1/4로, 세 번째 반감기에는 또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의 1/8과 같은 식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1로 같아진다. 두 번째 반감기에는 1:3으로 되고, 세 번째 반감기에는 1:7로 된다.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14’는 5730년, ‘포타슘-40’은 13억년, ‘우라늄-238’은 44억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슘-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3이라면 반감기를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이 암석은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원자핵의 구성 물질을 세부적 묘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 ② 질소-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 ③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 ④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 ②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 ③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16로 줄어든다.
- ④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1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이다.
- ⑤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

19.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 ②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 ③ 그는 혼자 힘으로 쓰러진 가세를 일으켰다.
 - ④ 아침에 몸이 피곤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 ⑤ 그녀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탄소-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cosmic ray)의 충돌에 의하여 계속 공급된다.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14의 생성 비율이 탄소-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12와 탄소-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한다.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갖으며, 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12와 탄소-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에 변화가 생긴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14가 질소-14로 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생성된 질소-14는 기체이므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 나간다.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의 그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와 탄소-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탄소-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

- ①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겠군.
- ②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14의 개수가 줄어들겠군.
- ③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12와 탄소-14의 비율에 변화를 일으키겠군.
- ④ 탄소-14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겠군.
- ⑤ 죽은 생물 안에 남아 있는 질소-14의 양만 알아도 생물이 죽은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Be the Reds'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소매점-도매점-제조업체-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하였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 한다. 이는 채찍을 휘둘러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파동이 끝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사회 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사회 현상과 관련된 원인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사회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립적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사회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 ②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 ④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⑤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기 때문이겠군.
- ②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겠군.
- ③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군.
- ④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기 때문이겠군.
- ⑤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군.

24.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할 것이다. 만일 도매점에도 재고가 모자라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 작업 등 계획에 없던 공장 가동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매점-도매점-제조업체’로 전달된다.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소매점은 도매점에 계획에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도 없다.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 ①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
- ②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 ③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
- ④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 ⑤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협력 공급 기획 예측(CPFR) 프로그램’이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 재고, 생산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단, 여기에서는 A전자와 B통신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

- ①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이다.
- ② A전자와 B통신의 휴대폰 재고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 ③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잉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 ④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 ⑤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한다.

그 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를 내놓았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 주시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씩씩이에 감동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근심이 되었다.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제가 과부 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소서.”

그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험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 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끊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래요.”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다. 노파는 짙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다.

“도련님께서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애의 이름은 영영(英英)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회산군(檜山君)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소?”

“그 때는 마침 그 애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산군 부인에게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글에도 능통해 회산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신답니다.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김생의 병이 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그것이 무엇이요? 빨리 말해 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 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벌이고 부인에게 영아를 보내 주십시오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떨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오월 오일은 곧 천상의 칠석

이오.”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다.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다.

(중략)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두 배나 더 간절하였다. 그러나 청초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거문고 줄은 다시 땀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李正字)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다.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했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자네의 병은 곧 나올 걸세. 회산군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래. 그 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A] 또 부인이 소천(所天)*을 잃은 후로부터,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회사(喜捨)와 보시(布施)를 잘 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 보겠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꼭 잡을 정도였다. 김생은 신신 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다. 정자는 그 날로 부인 앞에 나가 말했다.

“얼마 전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B]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 모라 하는 이읍니다. 그는 재기(才氣)가 범인(凡人)을 지나고 풍도(風度)가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이읍니다.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지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저녁으로 불안하니,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 본 즉 영영으로 인함이라 하읍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였다.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功名)을 사양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 작자 미상, 「영영전」 —

*소천(所天): 아내가 남편을 일컫는 말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27.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에게 조언하고, [B]는 상대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에게 칭찬하고, [B]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에게 위로하고, [B]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에게 공감하고, [B]는 상대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에게 충고하고, [B]는 상대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영전」은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 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결국,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영과 김생은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 ①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밖을 나서지 못합니다.’에서 조선 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에서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영아를 보내 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에서 노파도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에서 영영과 김생이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신전이다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좁은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여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넌지시 주고받으며
싱글거린다

오 이 향기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 내 코에 댄 깔대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 정현중, 「초록 기쁨 - 봄숲에서」 -

(나)

㉤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엽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질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 산봉우리야 오늘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켜 이상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현실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

30.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부호를 활용하여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숨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3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지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기쁨을 느끼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 ③ ㉡는 화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밤의 시간에 관찰하여 파악한 대상이다.
- ⑤ ㉠, ㉡는 모두 화자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 하늘, 나무, 꽃, 흙 등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나)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들,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 등으로 화자의 시선이 옮겨간다.

- ① ㉠: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흙을 바라보는 화자라 볼 수 있어.
- ③ ㉡: 자연의 향기가 코로 전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어.
- ④ ㉡: 화자가 본 시골길과 들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 ⑤ ㉡: 보리밭의 이랑 사이로 햇빛이 비취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어.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재개밭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짠지 향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음에랴! 이 벼락 맞아 뒤흔겨진 아새끼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등 뒤에서 올라온 따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끼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온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 리는 만무했다.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매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싶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첫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겨 던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의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아홉 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 양 두런거리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우랑바리나바롱나르비뭇다라까따라마까뿌라냐.....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꺾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 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뿔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짹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번 닿을 때

마다 흙알갱이가 알알이 박힌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나는 우선 향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 놓았다.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꼬나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복 바람으로 나왔다.

“방학 숙제로 널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론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욕쟁이 할머니의 찐지 형아리를 갠 후, 깨진 단지의 흔적을 치운다. 혼날 것을 두려워한 나는 가출을 한 후 여러 곳을 방황하다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곤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 통 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흥측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찐지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프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어지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푹푹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녀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문을 생각은 어찌 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쫓다.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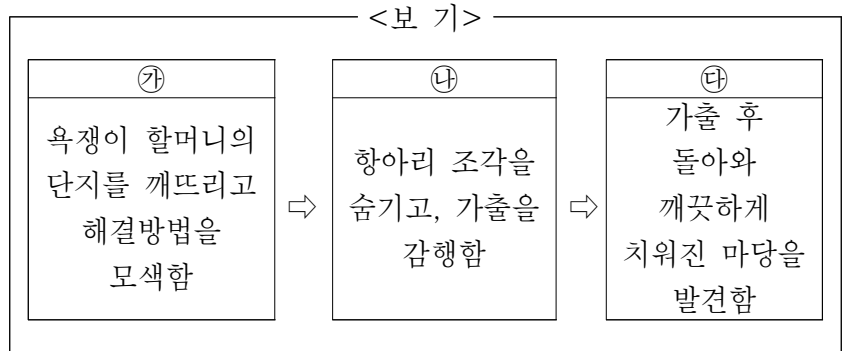
3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③ 소설의 대화와 외화를 넘나들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주인공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여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3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어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② 겨울날 해질녘에 귀가하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③ 가출을 감행해야만 했던 ‘나’의 처지가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 ④ 가출 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어른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나’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혼돈과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35. <보기>는 윗글의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이다. ㉠~㉣의 각 사건에 따른 ‘나’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단지를 갠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 ② ㉡: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
- ③ ㉢: 현정 아빠와 대화하기 전부터 ‘나’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④ ㉣: 가출 후 돌아와서,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⑤ ㉣: 불을 비틀며 자신을 꾸짖는 엄마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장 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다. 성장 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의 담론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인공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소설에서 내적 시간이 유년기의 시간대임에 비해서 실제적인 창작은 성인의 세계에 진입한 이후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구별되어 제시된다.

- ①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쓰였군.
- ② ‘눈사람’ 속에 깨진 향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나’를 살펴볼 수 있겠군.
- ③ ‘방학 숙제로 낼 일기’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나’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렇게 컸다’는 구절을 볼 때,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7~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삼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이다.”와 같이 ‘모든 ~는 ~이다.’로 하면 된다.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는 ~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느 ~도 ~가 아니다.’로 하면 된다.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이다.”와 같이 ‘어떤 ~는 ~이다.’라는 형식이면 된다. ‘어떤’이란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에서와 같이 ‘어떤 ~는 ~가 아니다.’라는 형식이면 된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다.”라는 일상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가 된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부분 긍정이 된다. ㉠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 반면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에서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 간주할 수밖에 없다.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된다.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고칠 수밖에 없다.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명제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둘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쳐 쓸 수 있다.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 검토해 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 주면 된다.

* 영가(靈歌):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는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는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
- ②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를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
- ③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의 표준 형식은 “모든 ~는 ~가 아니다.”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
- ④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고전 논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 ⑤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만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3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 언어는 논리학의 표준 명제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논리학은 명제의 형식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일상 언어의 문장과 논리학의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④ 논리학은 일상 언어의 문장을 우선 네 가지 기본 명제의 형식으로 고친 후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39.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 ①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군.
- ②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군.
- ③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군.
- ④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군.
- ⑤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 분명한 뜻을 지니는군.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
- ㉢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 ㉣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다.
- ㉤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 ① ㉠: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
- ② ㉡: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 ③ ㉢: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 ④ ㉣: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
- ⑤ ㉤: 이번 여름의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4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두루 널리 미치는
- ② ㉡: 구체적인 것으로 됨
- ③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 ④ ㉣: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해 따짐
- ⑤ ㉤: 일의 이치로 보아 옳은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히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업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 양사언의 시조 -

(나)
 乍晴還雨雨還晴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天道猶然況世情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A]
 譽我便是還毀我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B]
 花門花謝春何管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C]
 雲去雲來山不爭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D]
 取歡無處得平生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

* 사청사우(乍晴乍雨): 날이 맑았다 비가 오다 함, 번덕스런 날씨를 가리킴

(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센 지가 오래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썩었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격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게 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 퇴락(頹落):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짐

* 도탄(塗炭): 몹시 곤궁하거나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4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며 개선하고 있다.
- ②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③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④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 ⑤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 ③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 ~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설(設)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구조로 나뉜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는 ㉠ 전반부와 그로부터 얻은 결과를 독자에게 전하는 ㉡ 후반부로 구분된다. 글쓴이의 주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담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필과 비슷하다.

- ① ㉠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 ㉡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이 사건의 결과라면 ㉡은 그 원인에 해당한다.
- ④ ㉡은 ㉠의 사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것이다.
- ⑤ ㉠은 ㉡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45.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군.
-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격이군.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이군.
- ④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하는군.
- ⑤ 우물에 가서 송늪을 찾는 경우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